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모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문** 저는 작년부터 마음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자리 없이, 그 자리를 밟고 놓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특별히 세우지 않고 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밟고 계속 한곳에 놓으면서 밟는 마음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의식을 모은다 할까요? 그렇게 모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답** 그냥 허황되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구도 우리 몸뚱이와 같아요. 지구도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서 쉬지 않고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사람도 역시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달린 바퀴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바퀴가 그냥 질세없이 돌아가도 중심은 끄떡없이 있어요. 바퀴만 돌아갈 뿐이예요. 바퀴가 돌아갈 뿐이라고요.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그냥 중심에다가 놔라 이거예요.

바퀴 돌아가는 거는 일체 쉬는 사이가 없이 그대로 돌아가요. 정맥 동맥이 뛰고 돌아가듯 지금 하는 사이 없이 하고 있다가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자체도 그냥 그대로 자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자기가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 세계에 포괄적인 우주의 근본이 바로 이 중심에 직결이 돼 있거든요. 지구의 중심도 인간의 중심에 직결이 돼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다가 그대로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굴리는 거니까, 갈아 내고 안 갈아 내는 건 거기에 달려 있다고 그냥 거기다가 놓으세요. 기계가 돌아가니까 갈아 내야 하는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스스로 갈아져요. 갈아져서 그걸 가져온 사람에게 그냥 가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런데 거기다 놓지 않으면 갈아지지 않는 데 어떻게 거기다 놓지를 알겠습니까? 만약에 물건이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

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고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심 바퀴가 돌아가는 데다가 놓아서 갈아내면 모두 먹고, 또 갈아 낼 게 있으면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먹는 이치와 같아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중심이 빠지면 송장이 된다는 걸 왜 몰라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결정짓고

## 자기 주처를 믿고 일체를 거기다 놓아라!

나쁘다 좋다는 것도 알지요. 중심이 없으면 나쁘다 좋다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알겠어요. 자기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는 반면에 균형을 잡기 때문에 두뇌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도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를 믿겠어요? 남의 뿌림 믿을 거예요. 남의 나무를 믿을 거예요. 남의 고깃덩어리 믿을 거예요. 남의 믿

음을 믿을 거예요. 허공을 믿을 거예요? 뭘 믿는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중심을 믿어야 해요. 팔뚝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있잖아요. 팔뚝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있으니까 뭐라도 잡고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팔뚝과 손이 같은 거예요. 중심과 바퀴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아무길 놓어도 갈아 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자기 조

이 어떻게 남을 줄 수 있겠어요. 남이 배고픈 줄 어떻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개개인을 봐도 그렇고 질문하신 분으로 봐도 그렇고 우주를 봐도 그래요.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을 기준해서 그냥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생사가 돌이 아니다 이런 게 나오고, 막 돌아가기 때문에 병 발을 자

리가 없다는 거죠. 도는 막 돌아가는 중심에 의해서, 중심만이 아니라 바퀴도 중심도 물론 넣는 것

도 모두가 한데 합쳐서 돌아간다면 천백억화신으로서 응신으로서 나투는 법이예요. 만약에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화할 수가 있나. 자기를 못 믿어 봤자, 자기를 못 믿어 봤자 자기만 손해죠. 뭐, 판 사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처를 믿고 일체를 거기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놓고 관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모아지게 돼 있습니다.

# 외형적으로는 다 각각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생명입니다

## 법당에는 왜 가야 하는지요?

**문** 다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믿고 일체를 다 그 자리에 돌려놓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내 안의 자성불이 본래 있으니 내 마음에 불을 켜고 내 마음내키는 대로 자유스럽게 산다면 굳이 법당에 계신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요?

**답** 항상 마음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무심의 불이 켜져 있는데 바깥 세상에나 안 세상이나 똑같이 이끌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지요. 내가 한 거만큼 받게 돼 있고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올라가서도 부처님 형상이 바로 내 몸이요, 부처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임을 알면 절을 해도 돌이 아니니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런 마음으로, 나 아님이 없으니가 정성스런 마음으로 내가 나한테, 즉 말하자면 현재 의식이 잠재의식 그 자체에 한데 귀합된, 우주 삼라만상이 귀합된, 귀합된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 바로 내 주처에 절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은 자기 주처에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는 항상 끌려 다니면서 예배 올리는 겁니다. 법당에 올라가도 내 주처에 모두 귀합된 대공(大空), 즉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이 없이 한데 귀합된 주처에 예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당에 와서 불을 켜고 마음을 같이 한다 이 소리죠. 부처님과 나와 같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주처에 다 예배 올리는 거라고요. 일체가 다 공한 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생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누군 생명이고 있고 누군 생명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을 위해서 건지고 계시며, 부처님 마음은 항상 돼지 속에도 들어가고, 소 속에도 들어가고 일체 만 중생들한테 다 들어가는데 부처님이 따로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얼마만큼 해야 이 도리를 알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모두들 공부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봐도 바로 그 몸이 내 몸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깨미를 봐도 깨미의 생명도 내 생명이요, 그 깨미가 먹고 살려고 기어다니는 것도 인간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도 허탈히 볼 게 없어요. 다 귀중하죠. 그리고 유생 무생 일체 만물이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명이 바로 일체 만물의 생명이다 이겁니다. 외

형적으로는 다 각각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생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종교가 따로 있고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똑같으니까 여러 생명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공했다는 소리가 나온 거지요. 생명이 없어서 공했다는 소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주처에 모든 걸 놔 버려라, 다 놔 버린 그 가운데 내가 하겠으면 그냥 하는 대로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밥 먹겠으면 그냥 내가 밥 먹으라는 거죠. '주인공이시여, 나 밥 먹겠습니다.' 이라고 먹는 거 봤어요? 내가 배고프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처에서 움직거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으로.

## 사상을 깨뜨리려면

**문**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의미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마음공부의 측면에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 마음법이다 아니라는 따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것이 사상을 깨어 버리고 우리가 본 근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틀 아닌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지. 사상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내가 이런 일을 하

질서정연하게. 아래는 아랫사람의 도리를 해야 하고 위는 윗사람의 도리를 해야 하고 이렇게 서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지. 근본 뜻은 평등 공평으로서 나가고 질서를 정연하게 지키고 나가하는 것이야. 이렇게 평등공평이 아니라면 질서를 지킬 수가 없고 계율을 지킬 수가 없어. 계율을 하 나도 지킬 수가 없잖아. 계율을 지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화를 내고 악을 쓰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이 순간에 불꽃 나오는 거지 자기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업이 되는 거야. 천연적으로 사상을 다 깨뜨려 버렸다면, 관해서 거기다 놓고 다 평등하게 됐다면 스스로 그렇게 돼, 스스로서, 스스로서 어떤 걸 보든지 나같이 볼 수 있어. 하다못해 꽃 한 송이를 봐도 나같이 볼 수가 있어. 내 설움같이 볼 수 있고, 내 아픔같이 볼 수 있고, 내 어려움같이 볼 수 있고, 못한 나같이 볼 수 있고, 잘난 나같이 볼 수 있고, 모두 틀 아니게 말이야. 이런 게 중요하지. 책을 읽고 뭐고 바로 편다고 그래서, 그것이 질서정연한 게 아니야. 율법이 옳고 그르고 한다면 이걸 벌써 선(禪)에는 그릇된 거라 이 소리야. 옳고 그른 게 없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옳고 그른 게 없이 해라 이거기 이전에 사상을 깨뜨려 버려라 이거야. 일거수일투족 다 거기다 놓고 가면 다 그냥 계율을 지킬 수 있다 이거야. 함이 없이 하니까. 이 세상에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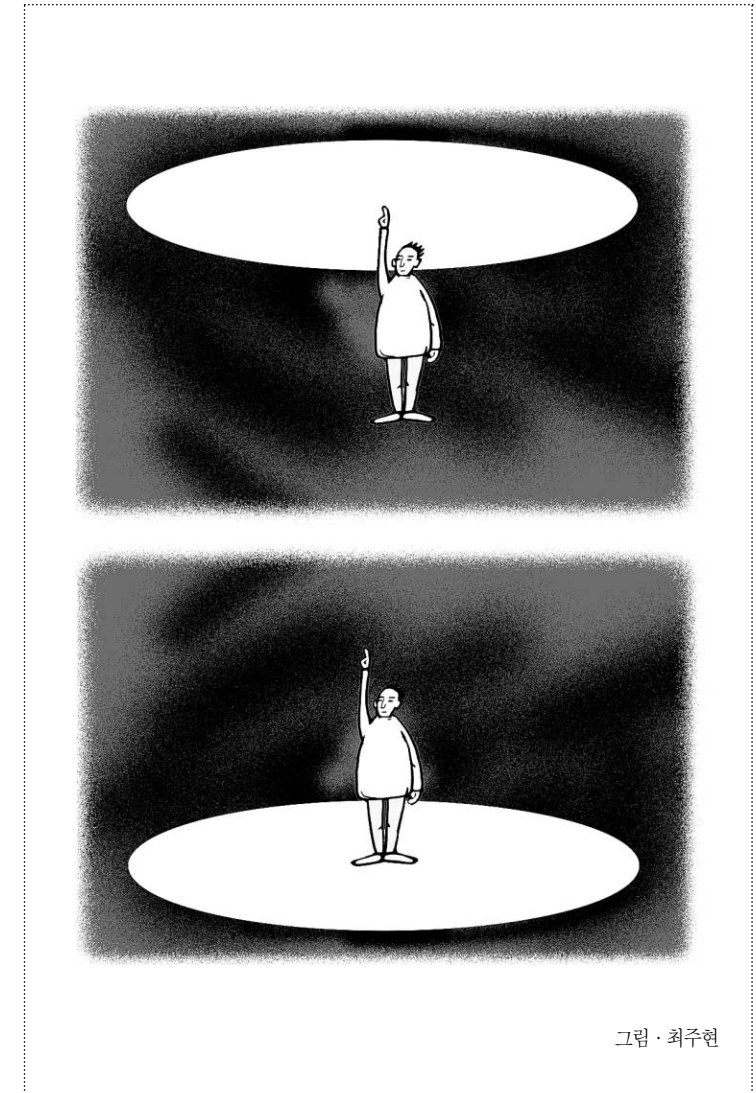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주처에 모든 걸 놔 버린 그 가운데 내가 하겠으면 그냥 하는 대로 믿고 나가라!

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간다.' 이런 거니까. 또 '내가 중생이다. 내 나이가 이러니까 이만큼 하면 수자의 근본이 이렇다.' 하고 나를 세우는 그 자체가 사상(四相)이지.

그럼 그 사상 속에 다 들어 있던 말이야. 아만이나 아상이나 남을 업신여겨 보는 거나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거나, 하여튼 모든 것을 알게 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고, 부처님을 볼 때도 높이 보지도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알게 보지도 말고 자기와 같이만 봐라 이거야. 자기 모습 같이 생각하고, 자기 아픔같이 생각하고, 자기 생멸같이 생각하고, 자기 살아나가는 데 어려운 것 같이 생각하고 모두가 틀 아니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하나나 있나 보라구. 자원의 진리를 가만히 습득해서 봐. 처음에는 육안으로 보다가 차차 차차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안으로 들어가게 돼. 또 더 차차 하다 보니까 혜안으로 들어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불안으로 들게 돼 있거. 사람이 마음을 맘대로 쓰라고 허용한 것이 마음이야. 마음을 맘대로 쓰라고 허용했는데 불구하고 맘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각처각급에서 공부를 하고도 하면서도 모두가 뽀랭이 마음이 흩어지니까 무엇할 하나 구성하지 못해. 그게 무슨 까닭이냐. 자기 마음과 자기가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자기 몸

이 집이라면 바로 자기 집 속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나 주인 없는 집은 유전성 영계성 세간성 업보성 인과성, 이 자체가 그냥 순간순간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는 거지. 빈집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가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 집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 주인 없는 집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들어오는 것 보이지 않는 데서 대치를 해야 하는데 대치를 할 수가 없거든. 집이 비웠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네 나무는 너무더 알아라. 네 뿌리부터 하나 구성하지 못해. 그게 무슨 까닭이냐. 자기 마음과 자기가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자기 몸

고 진리가 있고 부처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깨닫지 못함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상봉해야 된다. 왜냐?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도 다 한마음으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 한마음으로 조율을 안 하면, 일론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보살들이 전부 탄생이 돼서 이 이를 저 이를 천차만별로 보살의 이름을 지어서 응신으로서 모든 중생, 일체 만물만생, 천차만별의 중생들에게 다 배불고 나가는데 내가 나하고 상봉을 못한다면, 또 상봉을 해서 의식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한생각만, 그냥 생각이 아니야. 한생각만 다면 그냥 모두 어디든지 길 없는 길을 가고 그냥 함이 없이 거침없이 하는 거야. 그것이 부처님의 도리고 보살의 행이야.

부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만 부처님의 마음을 보살의 이름을 지어서 내 놓는 게 아니야. 우리들도 부처님과 똑같이. 돌이 아니야. 부처님의 몸도 돌이 아니요, 부처님의 마음도 돌이 아니요, 생명도 돌이 아니요. 그 반면에 저 미생물, 틀에서 노는 고기, 틀에서 노는 짐승, 허공

#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29면에서 계속

에 날라 다니는 새, 짐직한 데서 사는 생명들 이런 것도 들이 아니란 얘기가, 그 도리를 알면.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 하나도 스스로서 자기가 살면서 진화를 하게 돼 있어. 모든 게 다 진화를 하고 형성되고 진화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뜻을 자꾸자꾸 일깨워 자기를 자기가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어느 거 하나 없이 다 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부요 깨우침이야.

나는 부지런히 깨우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어. 부지런히 내가 빨리 해야겠다 하면은 빨리 하겠다는 대로 가슴이 답답하게 돼 있어. 또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게으른 생각이 들어가서 답답하구. 그러니까 양면을 다 놓으면 말아야. 그대로 물 흐르는 거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란 얘가지. 어느 게 들어온들, 어느 게 들어와도 물러서지 말구. '아이구! 이렇게 타러온 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구. 흙물이든 고름물이든 핏물이든 오물이든 모든 걸 들어오는 대로 그냥 집어삼킬 수 있다嘛. 그냥 바다와 같이 집어삼켜라 이거야. 그러면 편안해. 약도 집어삼키고 선도 집어삼킨다면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 그 가운데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상이나 뭐다 하기 이전에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밖에서 들어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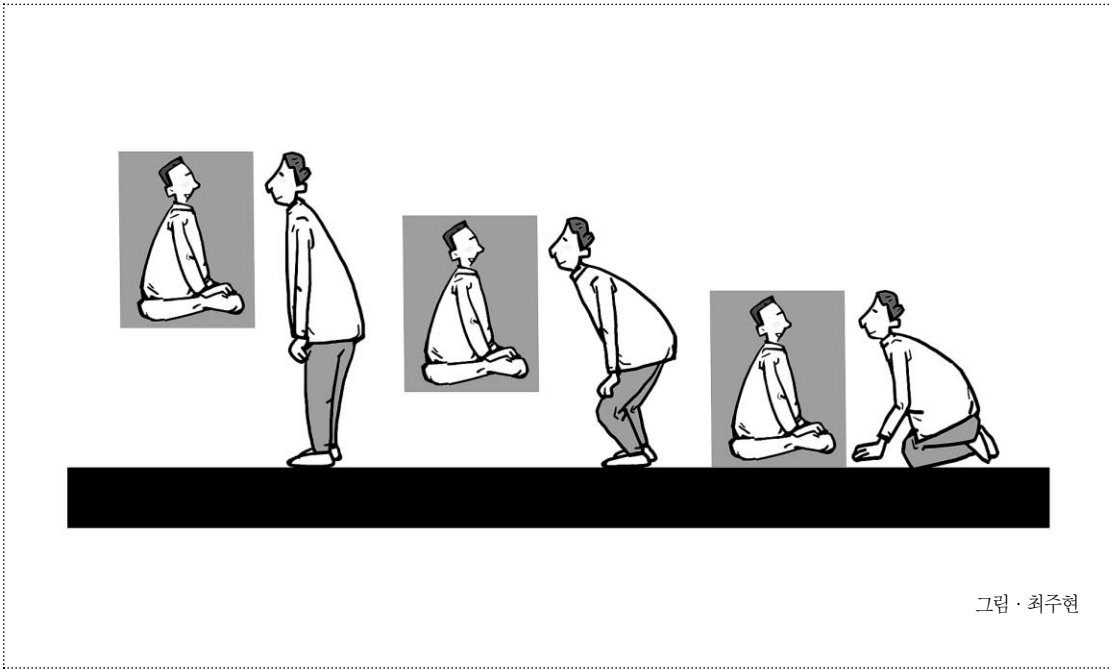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흙물이든 고름물이든 핏물이든 모든 걸 들어오는 대로 바다와 같이 집어삼켜라!

거든 일체를 나온 자리마다 다시 돌려놓는 작업부터 해 봐. 그러면 하나하나 알게 될 테니까.

### 정성들이는 것에 대해서...

**문** 우리가 불법공부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야겠다고 소원을 한다면, 불법도 세간 법하고 똑같아서 공짜가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성과를 내는 걸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회사를 하는 겁니까?

**답** 살면서 어떤 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요? 그러면 바로 예언자가 그리로 가고 와요.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걸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같이 하고 같이 먹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

주 고차원적인 양반이 죽었다고 해도 상여는 필요하지요? 상여가 아니라 영구차가 필요하지요? 그와 같이 누구에게든 영구차가 필요하고 영구차 끄는 기사도 필요하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이 살고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사는데 특별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해서 같이 살고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벌어들인 거지니깐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저저 해도 괜찮은가요? 그럼 자기한테 돌아갈 복도 없거니와 전자가 억겁 전전서부터 지어 온 업보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이날까지 끌고 다니면서 인간으로 진화해서 창조되게끔 한 장본인이 누군가를 보란 말입니다. 바로 자기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이, 부처님이라고 했다. 주인공이라고 했다. 지구 이렇게 하니 그 이름에 또 매달립니다. 관세음보살이

나 문수보살의 이름에서 떼어 놓으려고 했더니만 거기가 집착을 하고 탐바니까 그거조차도 놔 버려라 이거예요. 모든 걸 놔 버리는데 어디다 놓느냐? 내 주처에 놔 버려라 이겁니다. 모든 게 공한 도리에 다 놔 버리면 바로 그것이,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나가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되면 안되는 거는 자기 생각으로 능력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체 만물 만생이 같이 행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인간 자체가 없으면 안되니까 그것이 한 울에 모든 게, 나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을 깨달아 보란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습을 내버리고 고정되게 관념으로 잡던 습을 내버리고, 즉 말하자면 이 도리가 전부 하나의 공한 내 주처다.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가 도입해서 놔 버려라 이거예요. 놔 버리면 서 이거다 저거다 이유를 붙이지 말고 '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생각내면 생각내는 대로 주처에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인식만 가져라 이거예요. 주처에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거, 바로 자기가 주처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해 나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 안 하고 대가 받는 법 봤습니까? 한 달 일하고 대가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원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혼자 하고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전부 같이 하고 같이 먹으니 내가 예

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내 소원이 있으면 그렇게 예배를 올려라 이거예요. 올리면서 바로 나는 그렇게 믿어라 이거예요. 일체가 귀함된 자기 주처, 시간과 공간이 없는 대공의 이치를 바로 자기가 가지고, 주처에서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그럼 개별적인 나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전부의 하나이기 때문에 갖다가 보시하는 것도 그런 데서 온 거다 이겁니다.

그래, 기껏 남을 부러먹고 나만 먹겠다 그러고 안 주려고 하는 그 마음새가 자비심이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농사짓는 사람 생각 한번 안 하고 농사짓는 거 가지고 다 먹고 살아요. 또 농사짓는 사람은 우리가 정치가라든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또는 사람이 죽으면 염하는 사람, 관 파는 사람, 신발 파는 사람, 뭇 발벌 상업자가 다 알고 장사꾼이 있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해도 그건 누구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한테 자기가 보시하는 거죠. 자기가 먹고 산 거 고마워서, 감사해서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생활의 지침을, 모든 걸 파악하고 잘 검토해서 참고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누가 살고 있는가? 누가 가고 있는가? 누가 듣고 있는가? 누가 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서 나를 알았을 때 그 모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

## 악도 집어삼키고 선도 집어삼킨다면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

배를 올려야지요? 안 그래요? 그러게 누구한테다 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자기 주처에다 하는 거죠. 전부 귀함된 주처에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올리고 볼 거고 그런 거 그대로 하

써 영원한 나의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불생불멸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윤회에 끄달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소리죠, 끄달리지 않고 말합니다.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과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들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들이체 신청은 전화·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 설법 연수

- 교육목표
  -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은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계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가치관의 체계확립 및 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이론 및 실제
  6. 원고적성법(문장구성 및 내용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적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주문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유년 새해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시는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기도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장 이영숙 함장

- 大幸. 초.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의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술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 현대결혼연구원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관, 스테트형강관  
슬라브, 사철, 교외,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시)

서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 조은칼라지붕공사

## 간(肝)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용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마슬)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향미를 떨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담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황겨 9가마니를 담은 뒤 황겨에 물을 붓고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황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8~9일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